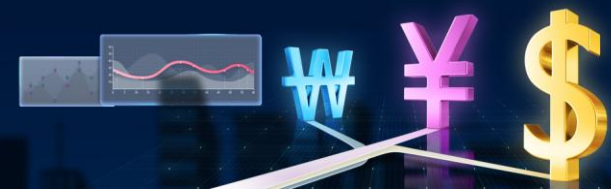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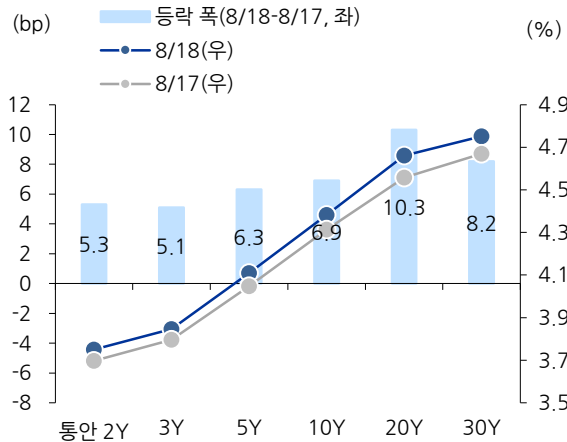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RA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톱)

		8/18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847%	5.1	6.9	89.4
	한국 국고채 10년물	4.382%	6.9	14.3	99.7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53.5	51.7	46.1	43.2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3.13	-11.0	-21.0	-231.0
	10년 국채 선물(LKTB)	105.07	-60.0	-118.0	-785.0
	미국채 2년물	4.172%	-0.5	-4.5	70.0
	미국채 10년물	4.706%	-1.8	1.5	53.8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53.4	54.6	47.4	69.6
	독일국채 10년물	3.272%	3.6	10.7	41.7
	호주국채 10년물	5.067%	5.5	6.3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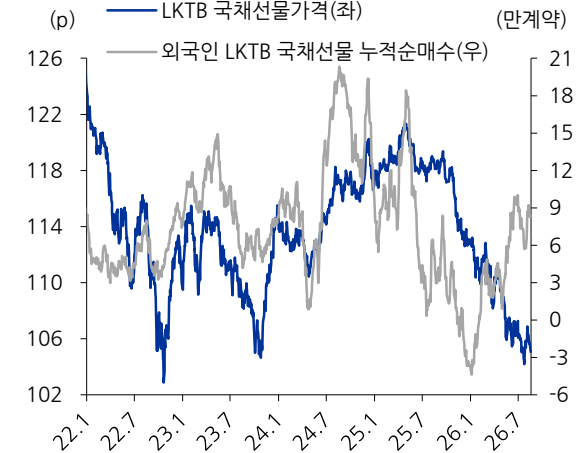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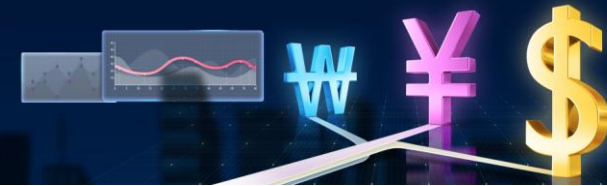
- 국내 채권시장 큰 폭 약세 마감.
-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금리 상승 영향으로 개장 초부터 금리 큰 폭으로 상승 출발. 오전 시행된 국고채 10년물 입찰도 부담으로 작용.
- 오후 들어 금리 상승폭 일부 반납. 입찰 종료와 함께 저가매수 유입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소폭 강세 전환.
- 개장 초 상승하던 금리는 하락 전환. 국채 30년물 한 때 5.339%까지 상승.
- 개장 직후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 급락한 것이 주된 요인. 수입물가 역시 전월대비 하락하면서 예상치 하회하며 금리 하락 견인.

자료 출처: 연한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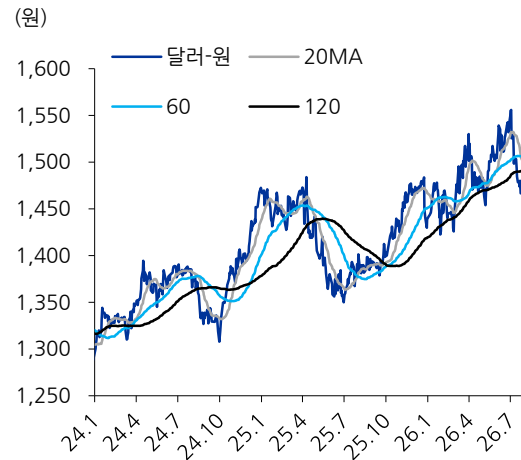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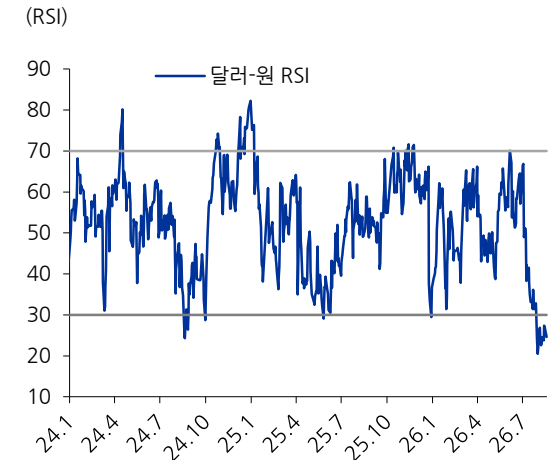
(단위: %, \$)

		8/18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411.80	-0.1%	-0.3%	-1.9%
	달러지수	99.65	0.1%	-0.2%	1.4%
	달러/유로	1.16	0.0%	0.3%	-1.4%
	위안/달러(역외)	6.75	0.1%	0.0%	-3.4%
	엔/달러	159.52	0.1%	0.2%	1.8%
	달러/파운드	1.35	-0.1%	0.2%	0.5%
	헤알/달러	5.22	0.3%	0.8%	-5.4%
상품	WTI 근월물(\$)	84.94	0.5%	2.1%	47.9%
	금 현물(\$)	4,334.49	-1.9%	-0.8%	0.4%
	비트코인(\$)	64,715	0.5%	1.8%	-26.4%

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 후 -1.20원 내린 1,411.80원 마감(야간 1,412.50원).
- 수출업체 달러 매도와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수(총 +8.1조원)가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중동 리스크가 환율 하락을 제한.
- 미-이란 MOU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아시아장에서 국제유가와 달러 상승하며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
- 원달러 환율은 7월 -125원 하락 이후, 8월 상하방 요인 혼재되며 뚜렷한 방향성 없는 모습. 연준 9월 인상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으나 중동 리스크가 하단 지지하고 있음. 금주 특별한 경제지표 부재해 레인지 장세 이어질 가능성.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미-이란 장기전 우려에 상승 마감(DXY +0.1%).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진행중인 협상이 없다고 언급했고, 이란측 인사 또한 미국이 MOU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하겠다고 발언. 이에 전쟁 장기화 우려 높아지며 달러 상방 압력으로 작용.
- 美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으나 10년물 4.7%, 30년물 5.2%대로 2008년 금융위기 전후와 비슷한 높은 수준 유지되며 달러 강세를 지지.
- 중동 리스크 장기화와 높은 美 국채금리로 당분간 달러 하단은 견고할 것으로 예상.